



“우수 종축생산농가 농업인 교육” 전국 순회 교육 성료



우수 종축 생산농가 농업인 교육

한미 FTA협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등 많은 변화와 각종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축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영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축개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회에서는 지난 3월 13~15일까지 인천, 아산, 포천지역을 순회하며 네덜란드 NRS 개량전문가 Dick Koom과 우리나라 가축개량전문가를 초빙하여 “우수 종축생산농가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축산농가 및 가축개량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네덜란드 가축개량체계를 소개하고 국내 가축개량의 현안과 당면 과제를 짚어봄으로써 국내 개량체계의 개선을 유도하고 가

축개량의 활성화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가축개량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뜻있는 자리가 되었다.

1. 가축개량의 현황

발표 : 이종헌 사무국장(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와 젓소의 개량 현황 및 기법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축산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실익을 전해주는 교육이었다.

최근 한우와 젓소개량의 연도별 등록현황과 축종별 가축개량추세 등





을 소개하고, 혈통과 능력이 우수한 송아지가 경매에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가축개량을 통하여 생산된 우수한 개체들의 높은 생산성이 농가소득으로 이어짐을 강조하였다.

이종헌 사무국장은 국내의 한우와 젓소의 경우 평균산차가 3산미만으로 일본 화우 평균 8.5산에 비해 매우 낮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산차수를 높여야함을 피력하였다.

2. 가축개량 정책방향

발표 : 최염순 서기관/농학박사(농림부 축산정책과)



가축개량의 정책방향과 중장기 발전대책에 대한 축종별 발표에서 정부는 소비자의 기호변화, 개량대상 형질 및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개량목표를 생산성 위주에서 품질 향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며, 분산·중복 지정된 가축개량 관련 유사 조직을 통합, 개편하여 일원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우의 경우 한우 육종농가 제도 도입 및 개량농가의 등록우 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고, 정확한 유전정보에 의한 능력이 뛰어난 보증씨수소 선발·이용을 통해 우수 정액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할 것이라고 하였다.

젓소의 경우 규모화된 우수 검정농가를 육종농가로 선정하여 암소와 수소의 동시 검정을 통해

유전형질이 우수한 보증씨수소 선발하며, 국내 유전평가·선발체계를 확립하여 국내산 젓소 정액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체계 확립할 것임을 밝혔다.

종돈은 「돼지개량 Network」를 구축하여 우량 종돈을 선발, 이를 이용할 것이며, 원종돈업의 등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종돈장의 위생 및 질병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시설 개선비를 지원할 것이며, 우수 종돈의 적정가격 및 수출활성화를 위해 종돈수출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것이라고 하였다.

3. 네덜란드 개량체계 및 유전자원 현황

발표 : Dick Koom(네덜란드 NRS 개량전문가)

(통역 : 한경대학교 전광주 교수)

네덜란드 NRS 개량전문가인 Dick Koom은 네덜란드의 전반적인 가축 개량체계를 소개하고, 젓소등록 관리시스템, 선형심사, 유우군 검정 및 선진 인공수정기법



등과 유전능력이 뛰어난 젓소 유전자원의 생산을 위한 네덜란드 육종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였다.

Dick Koom은 네덜란드의 연간 원유 생산량은 2006년 기준 11,100천 톤이며, 네덜란드의 낙농업은 1960년 이후 급속히 성장하였으며 현재 23,500호의 낙농가에서 1,430천두의 젓소를 사육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원유 생산량의 14%인 1,464천 톤은 시유로 생산되며 나머지는 치즈, 버터, 분유 등 가공유제품으로 생산되고 있고, 이중 소량은 젓소를 사육하

는 목장에서 목장형 유가공 형태로 생산되고 있다고 하였다.

네덜란드 가축개량체계는 NRS에서 혈통등록, 선형심사, 우군검정, 개체식별사업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수한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수출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번 교육은 국내 젖소개량 체계와 현안들을 되짚어보고 국내 개량체계의 개선과 가축개량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된 교육이었다.

4. 종돈개량의 현재와 미래

발표 : 도창희 소장(경남첨단양돈연구소)

동물유전 육종의 전문가인 경남첨단양돈연구소 도창희 소장은 본회와 경남첨단양돈연구소에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종돈개량의 현황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도창희 소장은 종돈의 유전능력 평가법을 소개



하고 종돈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료처리 오류 등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고, 보다 체계적인 종돈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또한 기초 및 생명공학 등 첨단분야의 연구의 중요성도 피력하면서 결국 이러한 연구와 사업들이 전문 양돈인을 육성하는 밑거름이 되고 양돈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이어짐을 강조하였다.

경남첨단양돈연구소에서는 미국산 버크셔를 도입하였고, 일본으로부터 가고시마 흑돼지를 기증받아 유전공학을 활용한 새로운 육종기법도입으로 탄생된 계통돈 조성에 대한 소개와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육질의 돼지고기를 경제성 있게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